

姜시장·金지사, '개헌안 무산' 강력 반발...재표결 촉구

姜 "투표 불참은 국민투표 기회 박탈"

金 "시대적 소명 외면 반역사적 폭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력히 반발하며 재표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민주

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39년 만에 비로소 찾아온 개헌의 기회, 민의를 저버리고 대의를 짓밟은 이들의 역사적 행태를 전남·광주 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개헌안은 5·18 정신 명시와 더불어 다시는 위헌적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

를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미 국민 대다수는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명령하고 있다"며 "오직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며 대의를 저버린 세력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는 본회의를 즉각 다시 소집, 개헌안을 재상정해야 한다"며 "개헌을 가로막는 세력은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재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후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 뒤 "참답하다.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국민에게 개헌투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끝내 국민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시키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찬성·반대는 국회의원 소신이지만 이번 투표 불참 행위는 단순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8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기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5월8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헌법 개정 표결을 다시 하겠다.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목포해양대 부두에서 열린 '목포해양대 2026학년도 1학기 국제항해 출항식' 행사에서 실습생들을 환송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목포해양대, 실습선 국제항해 출항식

金지사 "亞太 대표 해양특성화대학 육성 지원"

전남도는 7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대학 본부 앞 행사장에서 '2026학년도 제1학기 실습선 국제항해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재을 HD현대사호 대표이사, 안교진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대양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항을 기원했다.

이번 국제항해 출항식은 미래 해기사인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 이론을 실제 항해 실습에 적용하고 글로벌 선상 생활 적응력과 전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생 306명과 교직원 77명 등 총 382명이 출

항한다. 세계로보는 필리핀 마닐라와 대만 가오슝, 일본 오기나와를 경유하고, 새누리호는 필리핀 마닐라와 대만 기륭, 일본 하카타를 거쳐 두 선박 모두 29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복귀한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해양대는 1982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의 해운과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이번 국제항해가 실습생을 진짜 해양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목포해양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전남도는 목포해양대학교에 전남 RISE 사업 등을 통해 해양수산, 향만물류, 조선 등 특성화 분야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한덕수 2심 징역 23→15년... "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 의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 유죄 1심서 인정한 '부작위'는 이유 무죄·파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부작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감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2심은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경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이날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취재진에 "1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의 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직급 윤곽

행안부 '행정기구정원 기준 규정'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기획담당실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재난안전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격상됐다. 소방 지휘담임 소방본부장도 소방감급이 담당한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직급 조정도 이뤄진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이 맡는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발전소의 명칭	모수, 환촌, 격자, 강천, 훈장, 고동, 계족, 누지, 문수, 농어, 국제, 고성, 현술, 우천, 에이, 메디, 네오, 트로, 후아, 스트, 이지 태양광발전소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서리 1094-2, 1094-3, 1094-4, 1094-5, 1094-6, 1094-7, 1094-8, 1094-9, 1094-10, 1094-11, 1094-12, 1094-13, 1094-14, 1094-15, 1094-16, 1094-17, 1094-18, 1094-19, 1094-20, 1094-21, 1094-22, 1094-23, 1094-24, 1094-25, 1094-26, 1094-27, 1094-28, 1094-29, 1094-30, 1094-31	
발전소의 면적	모수(17,242㎡), 환촌(17,694㎡), 격자(19,070㎡), 강천(18,869㎡), 훈장(19,148㎡), 고동(18,584㎡), 계족(18,443㎡), 누지(18,728㎡), 문수(16,417㎡), 농어(18,766㎡), 국제(18,867㎡), 고성(25,115㎡), 현술(18,808㎡), 우천(18,315㎡), 에이(18,535㎡), 메디(18,367㎡), 네오(18,798㎡), 트로(19,220㎡), 후아(19,008㎡), 스트(18,435㎡), 이지(22,195㎡) 태양광발전소	
발전 사업의 내용	설비 용량	모수(2,589.84kW), 환촌(2,736.00kW), 격자(2,829.60kW), 강천(2,939.76kW), 훈장(2,852.64kW), 고동(2,801.52kW), 계족(2,907.36kW), 누지(2,921.76kW), 문수(2,652.48kW), 농어(2,856.24kW), 국제(2,952.72kW), 고성(2,989.44kW), 현술(2,959.20kW), 우천(2,890.80kW), 에이(2,962.08kW), 메디(2,908.08kW), 네오(2,965.68kW), 트로(2,911.68kW), 후아(2,999.52kW), 스트(2,911.68kW), 이지(2,771.28kW) 태양광발전소
	사업개시 예정일	2027년 09월 30일
	사업 운영기간	2027년 09월 30일 ~ 2057년 09월 29일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
발전 사업 허가 신청처	도원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무등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숲성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정실5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수서4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자은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달빛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막산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열린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파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아성2차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흥우3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도원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의견제출 기간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14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의견제출 방법	전 화) 02-556-1504 FAX) 02-556-1502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저 및 잉크jet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판매
- *임대 *A/S

T.375-5880

[특보]

- 병원용도:아파트대단지대로변250평 450평 — 4억공짜지원(시설비명목)
- 대형슈퍼,헬스장,당구장:집기제공 — 6개월 무상임

[급매]

- 재개발단지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 — 점포4칸, 주차4대 (급매)2억6,500
- 서영대역(운암동)주거및자연녹지 투자용 — 360평 평당80만원 총가2억8,800

[교환]

상가모텔 주택 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